

한국어 의미학 9, 2001.

국어 형용사의 어휘사: 파생형용사의 어휘사를 중심으로

석 주 연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Abstract>

Suk Joo Yeon. 2001. The Histoty of Korean Adjective. *Korean Semantics*, 9. The derivative adjectives of Korean are more a 'proper' adjective than any other kinds of Korean adjectives. We can confirm this point both in contemporary Korean and in various archives coming from the fifteenth century till the nineteenth century. The derivative adjectives of Korean have never functioned as a verb. By examining their historical development, we can find out how this most typical adjectives of Korean have changed throughout the period of modern Korean, and how the new adjectives were added to the inventory of the Korean adjectives during the period. In this period the intensive competition in productivity among a number of adjective-forming suffixes with similar function leded to the disappearance of some groups of adjectives and to the appearance of new adjectives. In some cases, the new adjectives had been formed through restructuring. For instance, the derivative adjectives of '-Ah-' type had been formed through restructuring.

핵심어: 파생형용사, 생산성, 신조어, 화석화, 재구조화

1. 서론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정태성과 항구성을 그 의미 특성으로 가진다. 따라서 동작성과 과정성을 의미 특성을 가지는 동사와 구별되는 듯이 보이지만 양 품사는 실제로 개별 어사들의 형태론적 실현 양상들에 있어서는 구별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평서형 종결어미 ‘-니다’, 명령형 종결어미 ‘-아라’, 청유형 종결어미 ‘-자’의 통합 여부로 양자를 구별하여 용언 어간에 이들이 통합 가능하면 동사로, 가능하지 않으면 형용사로 간주하지만 이것도 동사와 형용사를 구별하는 완벽한 기준이 되지는 못한다.

가령 ‘조용하다’와 ‘침착하다’는 형용사이지만 동사적인 활용 양상을 보여 ‘조용하자’와 ‘침착하자’와 같은 활용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국어 형용사의 동사적 속성으로 인해 국어의 형용사를 ‘상태동사’라 칭하는 논의들도 있어 왔다.

국어의 옛 모습에서도 이러한 면면은 어김없이 찾아 볼 수 있다. 중세국어에서도 동사와 형용사는 그 구별이 명확하지 않았던 듯하다. 옛 문헌에 나타나는 한자에 대한 주석에서도 동사와 형용사에 대한 주석은 ‘-르 씨라’와 같이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동사와 형용사의 구별이 모호했음은 나타나는 양상에 있어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옛 국어에서도 다름이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형용사 중 파생형용사 부류 중에는 동사와 구별되지 않는 형용사가 없다는 점이다.¹⁾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국어의 파생형용사는 그 어떤 형용사 부류보다도 형

1) 파생형용사의 부류 중에 동사와의 구별이 모호한 경우가 없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파생형용사가 원래부터 형용사가 아니었고 다른 품사로부터의 파생을 겪어 형용사가 된 어사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형용사 파생접미사의 주요 기능이 동사를 형용사화하거나 혹은 명사를 형용사화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품사 변화를 주요 기능으로 하는 접미사에 의한 파생의 결과물인 파생어가 어기의 원래 품사인 동사와 구별이 모호해지는 일은 저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용사의 원형적인 모습에 가깝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국어 형용사의 어휘사를 다룰 때 파생형용사의 어휘사를 중심으로 다루는 것은 가장 형용사다운 형용사의 어휘사를 다루는 것이라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런 의미에서 가장 형용사다운 형용사의 양상을 보이는 국어 파생형용사의 어휘사를 중심으로 국어 형용사의 어휘사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 중에 근대국어 시기 새롭게 등장하는 형용사들을 다수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은 국어 형용사의 어휘 목록을 결정적으로 풍부하게 한 어휘들이라 할 수 있다.

2. 국어의 파생형용사와 그 사적 변천

국어의 파생형용사의 구성 요소로는 어기가 되는 품사의 어간과 어기에 부가되는 접미사 혹은 접두사가 있다. 접미사의 경우나 접두사의 경우 중세국어 이전의 자료에서는 그 존재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구결 등의 차자 표기 자료 등에서 접사의 모습은 좀처럼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중세 이후의 파생형용사에 대해 주로 다루기로 한다.

접두 파생형용사는 문헌 속에 등장하는 용례가 많지 않은 편이다.²⁾ 이에 반해 접미사에 의한 파생형용사는 그 용례와 종류가 상당히 많은 편이다. 접미사에 의한 파생형용사를 접미사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업-’계 파생형용사, ‘-브-’계 파생형용사, ‘-겹-’계 파생형용사, ‘-답-’계 파생형용사, ‘-되-’계 파생형용사, ‘-롭-’계 파생형용사, ‘-스럽-’계 파생형용사, ‘-것-’계 파생형용사, ‘-지-’계 파생형

2) 대표적인 것으로 접두사 ‘들-’에 의한 ‘들피쥬근하다(역어유해 상 50)’, ‘무-’에 의한 ‘무더워(구급간이방 1:102)’, ‘불-’에 의한 ‘불믈로고(언해두창 하 31)’, ‘식-’에 의한 ‘식노란(청구영언 67)’, ‘양-/알-’에 의한 ‘양피왜라(청구영언 58)/알피오라(청구영언 67)’ 등이 있다.

용사, ‘-엷-’계 파생형용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 중에서 중세에서 근대에 걸쳐 파생접미사의 세력 분포 양상의 변화에 따라 파생형용사 자체가 소멸과 생성의 길을 겪는 모습, 의미 영역이 서로 중복되는 파생형용사 간의 세력 경쟁의 양상 등을 살펴보고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보이는 몇 개 파생형용사의 부류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1. ‘-엷-’계 파생형용사 · ‘-브-’계 파생형용사의 세력 경쟁 양상과 새로운 형용사의 등장

중세국어 시기에 접미사 ‘-브-’는 환경에 따라 ‘븜/븘/븙/ㅂ/브’ 등의 이형태를 가졌었다.³⁾ ‘깃브다’, ‘밋브다’, ‘알팍다’, ‘고프다’, ‘놀랍다’, ‘그립다’ 등은 ‘-브-’에 의한 파생형용사로 중세국어 시기에 이미 여러 문헌에서 확인된다. 그런데 이들 파생형용사는 중세 이후 시기에는 ‘-브-’의 쇠퇴와 함께 ‘-브-’에 의한 새로운 파생형용사를 더 이상 생산하지 못한다. 이들의 쇠퇴는 기존 형식을 변화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파생형용사를 계속 유지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지만 동일한 어기에 대해 ‘-엷-’에 의해 새로운 파생을 허용하면서 ‘-엷-’계 파생형용사로 대체를 보이기도 한다. 그 구체적인 양상을 다음의 예를 통해 살펴보자.

(1) ㄱ. 늦거웨라(청구영언 p. 64), 늦거운(명주보월빙 1:21)

ㄴ. 불워 흐노라(송강가사 이선본 하:17-18)

ㄴ.’ 부럽다(동문유해상 33)

(2) ㄱ. 깃브다(역어유해 하 42) ㄱ.’ 깃거워 허시논(재간교린수지 4:9)

ㄴ. 밋부물(이언 1:4)

ㄴ.’ 미덥지(이언 2:2)

3) 이들은 음운론적으로 조건된 이형태다. 어간의 말음이 모음이면 ‘븜’, ‘Δ’이면 ‘븘/븙’, 그밖의 자음이면 ‘ㅂ/브’로 교체된다. 이들의 환경과 교체 양상에 관해서는 안병희(1968) 참조.

(3) 뉘웃썌료(이륜행실 14)

(1)은 ‘-브-’의 생산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브’에 의해서는 파생형용사의 신조어가 형성되지 않고 ‘-브-’와 기능상의 유사성을 가지는 ‘-업-’에 의하여 파생형용사가 새롭게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17)은 중세국어에서는 확인되지 않던 파생형용사다. ‘늦기-’에 ‘-업-’이 통합되어 형용사 신조어가 형성된 것을 알 수 있다.

(1ㄴ)에서 중세국어의 ‘뵤-(블--+--ㅂ-)’이 원순모음화를 겪은 형식인 ‘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뵤-’은 현대국어에 남아 있지 않다. 바로 접미사 ‘-ㅂ-’의 쇠퇴와 ‘-업-’의 활발한 생산성을 배경으로 인해 ‘-업-’에 의한 신조어 ‘부럽-’ ((1ㄴ))이 생성되고 이러한 과정 후 ‘뵤-’이라는 어휘 자체는 ‘부럽-’으로 대체되는 상황을 맞게 된다. 현대국어에는 물론 ‘부럽-’만이 남아 있다.

(2)에서는 중세국어의 ‘-브-’에 의한 파생형용사가 근대국어 이후 화석적 요소가 되어 어휘 속에서 그 형식을 유지하기는 하되 동일한 어기에 대해 근대 시기 활발한 생산성을 보이는 ‘-업-’에 의한 파생을 허용하여 이후 이 ‘-업-’계 파생형용사와 공존하는 모습을 보이는 예들을 확인할 수 있다.

(3)은 ‘-브-’계 파생형용사이기는 하나 근대국어 시기까지만 존재하고 현대국어에서는 그 모습마저 감춘 어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업-’에 의한 파생형용사의 형성이 중세국어 이후 활발해진 것을 ‘뵤-’를 대체하는 ‘부럽-’과 같은 새로운 형용사가 형성되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지만 ‘-업-’ 파생의 적용 영역 자체가 상당히 넓어졌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세국어 시기에 ‘-업-’에 의한 파생은 어기 말음이 i인 동사 어간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즐기-’, ‘앗기-’, ‘붓그리-’의 동사 어간을 기반으로 ‘업’이 통합되는 과정 중에 i가 탈락함으로써 ‘즐겹-’, ‘앗기-’, ‘붓그럽-’과 같은 형용사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근대국어 시기에 ‘블-’에 업이 통합된 ‘부럽-’, ‘민-’에 ‘업’이 통합된 ‘미럽-

-'이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앞에서 언급한 중세국어의 파생 조건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불-'이나 '믿-'은 어기 말음이 i가 아니었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근대국어 시기 '서늘', '근질', '간질', '부들' 등의 상징어 어근을 중심으로 형성된 다음과 같은 파생형용사들이 확인됨은 이 시기 '업'에 의한 파생형용사 형성이 동사 어기를 기반으로 할 뿐 아니라 상징어 어근을 기반으로 활발하게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ㄱ. 부드럽다(명의록언해 1:42)

ㄴ. 근지럽스외다(재간교린수지 2:12) ; 간지럽스외다(교정교린수지 83)

ㄷ. 서느러운(박통사언해 상 21)

한편 (5) 역시 '-업-'계 파생형용사의 활발한 형성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예이다.

(5) 두려온(畏)(여훈언해 하 29); 두려오니(畏)(벽온신방 1); 두려호야(畏)(여훈언해 하 33); 두려워 호며(경신록언석 70)

중세국어에서 '두렵-'은 '圓'의 뜻을 가지는 형용사였다. '畏'의 뜻을 가지는 형용사는 '두리-'에 '-ㅅ-'이 통합하여 형성된 '두렵-'이었다. 그런데 '두렵-(畏)'는 접미사 '-ㅅ-'의 쇠퇴와 함께 어휘 자체가 소멸하는 길⁴⁾을 겪고 근대국어 시기 다시 '두리-(畏)'에, 생산성이 활발한 '업'이 통합됨으로써 새로이 '두렵-(畏)'이 형성되게 된다. 특히 17세기 초반 문헌인 《女訓諺解》 등에서의 '두렵-(畏)'의 출현은 이 형용사의 최초 출현 시기를 짐작하게 한다.

이렇게 (5)는 근대국어 시기 중세국어 시기에는 존재하지 않던 '두렵-(畏)'이라는 형용사가 새로이 형성되었음을 보이는데 '두리-'

4) 궁극적으로는 소멸의 길을 겪었지만 '두렵소(畏)(재간교린 4:4)' 등을 고려할 때 19세기까지도 '두렵-(畏)'와 공존했음을 알 수 있다.

에 ‘업’이 통합될 때 중세국어 시기 ‘봣그리-’ 등에 ‘-업-’이 통합되었을 때 통상 적용되었던 어간 말음절의 i탈락이 일어나 ‘*두렵-’이 되지 않고 활음 형성이 일어나 ‘두렵-’이 형성되었음이 매우 흥미롭다.

한편 현대국어의 ‘우습-’이 출현하기까지는 다음의 과정이 전제되었다. (6)을 살펴보자.

(6) ㄱ. 우소온(개수첩해신어 9:30); 우습도소니(여사서언해 2:26)

ㄴ. 우웁관디(계축일기 p. 37)

cf.) 웁비(월인천강지곡 179)

중세국어에는 ‘웁-’에 ‘-보-’가 통합된 ‘웁보-’가 있었다. 그런데 이 형용사는 이후 ‘△’의 소멸과 ‘-보-’의 쇠퇴를 겪은 후 근대국어 시기에 (6ㄱ), (6ㄴ)의 형식을 보이게 된다. 그 과정에는 ‘웁-’ 대신 ‘웃-’이라는 새로운 방언형의 유입과 파생접미사 ‘업(읍, 읊)’에 의한 파생어 형성이 전제되었다.⁵⁾ 즉 파생어의 어기(웁-)가 다른 방언형으로 교체되면서(웃-) ‘-업-’에 의한 새로운 조어법이 적용되어 ‘우습-’이라는 새로운 형용사가 출현하게 된 것이다.

기존의 파생형용사에 대한 연구는 중세국어 형용사 파생에 대한 연구에 집중된 바 근대국어 시기를 중심으로 한 연구, 특히, 새로이 형성되거나 변화를 보인 형용사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이 이

5) ‘웃-’의 유입에는 ‘△’의 소멸이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웁-’의 소멸 후 이 어간에 ‘-으니’와 같은 형식이 후속될 때 ‘우니’와 같은 음성형이 도출되고 이는 ‘울-(泣)’에 ‘-으니’가 통합한 ‘우니’와 발음상의 일치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울-’은 ‘웃-’의 반의어다. 이렇게 반의어 간에 부분적 동음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정상적인 의사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게 된다. 따라서 반의어간의 부분적 동음화 현상을 회피하고자 ‘웃-’이라는 방언형의 유입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웃-’의 유입이 방언형의 유입이라는 논의는 김완진(1973)이 참조된다.

투어지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근대국어 시기 높은 생산성을 보이는 ‘-업-’에 의한 파생형용사의 형성으로 근대국어 시기 국어 형용사 목록에는 새로운 형용사 항목들이 추가되었으며 이로써 우리는 현대국어에서의 형용사가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이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 ‘-브-’에 의한 파생의 쇠퇴와 화석화, ‘-업-’ 파생의 조건 완화와 영역 확대, 개별 어휘 발달의 다양한 모습 등은 우리에게 국어 형용사 어휘사의 중요한 한 측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2.2. ‘-답-’, ‘-되-’, ‘-롭-’, ‘-젓-’, ‘-스롭-’에 의한 파생형용사와 그 세력 경쟁 양상

동사 어간이 아닌 명사 어간을 기반으로 파생형용사를 형성한 용례는 동사 어간을 기반으로 한 경우보다 훨씬 더 많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답-’, ‘-되-’, ‘-롭-’, ‘-젓-’, ‘-스롭-’에 의한 파생형용사들이다. 이들 파생형용사는 동일한 어기 범주인 명사를 기반으로 형성되는데 근대 이후 비슷한 기능을 하는 접미사간의 세력 경쟁으로 기존의 형용사가 새로운 모습의 형용사로 대체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기존의 형용사와 새로운 형용사가 공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2.2.1. ‘-답-’, ‘-되-’, ‘-롭-’에 의한 파생형용사를 중심으로

우선 접미사 ‘-답-’, ‘-되-’, ‘-롭-’을 기반으로 하는 파생형용사에 대해 살펴보자. 중세국어에서 접미사 ‘-답-’, ‘-되-’, ‘-롭-’, ‘-르외-’에서 ‘-답-’과 ‘-롭-’은 자음 어미 앞에서 사용되었고 각각의 ‘-되-’와 ‘-르외-’는 모음어미 앞에서 사용된다는 제약을 가졌었다. 그런데 이미 15세기 말엽에 가면 ‘-되-’ ‘-르외-’도 자음 어미 앞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예가 보이게 되는 바 결국 16세기 말에 가면

‘-답-’와 ‘-드외-’는 ‘-되-’로 합류하고 ‘-롭-’과 ‘-르외-’도 ‘-롭-’으로 합류하게 되어 16세기말에는 15세기부터 형태 변화 없이 존재하던 ‘-답-’ 이외에 ‘-롭-’, ‘-되-’ 등의 접미사가 세 계열을 이루어 정착하게 된다. 가령 15세기 주로 ‘망녕드원, 일편드원, 욱드원, 의심드원’ 등으로 나타났던 파생형용사가 ‘망녕된, 일편된, 욱된, 의심된’ 등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되-’가 ‘-드외-’에서 왔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16세기 이후 접미사 ‘-답-’에 의한 신조어적 파생형용사는 나타나지 않는다. 대신 근대 이후 ‘-답-’과 ‘-드외-’의 합류형인 ‘-되-’가 활발한 생산성으로 파생형용사의 목록을 추가한다. 이 시기 ‘-되-’에 의한 신조어적 파생형용사로 다음과 같은 예들이 있다.

- (7) ㄱ. 참된(삼성훈경 22) ㄴ. 그릇되미(여사서언해 2:29) ㄷ. 헛된(이언발 10) ㄹ. 편벽된(명성경 30) ㅁ. 속죄게(정정언어대방 9:12) ㅂ. 잡죄이(재간교린수지 4:16)

그런데 이 용례들을 살펴보면 (7ㄱ), (7ㄴ) 이외의 용례들은 모두 한자어 명사를 어기로 한 파생형용사들인 것이 특징이다.

‘-롭-’에 의한 파생형용사로 새로운 신조어가 근대국어 시기에 많이 등장한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 (8) ㄱ. 호화로운(태상감웅편 3:33) ㄴ.羲롭디(어제내훈 3:36) ㄷ. 상서롭디(여사서언해 3:75) ㄹ. 대혜로이(첩해신어 5:5) ㅁ. 넘너롭스외(언어대방 8:9) ㅂ. 대스롭디(언어대방 1:3) ㅅ.可笑롭스외(언어대방 6:3) ㅇ. 신긋로운(언남 7) ㅈ. 위티롭다(동문유해 하 57) ㅊ. 방해롭다(넘볼보권문 7) ㅋ. 경스로와(천의소감언해 1:13) ㅌ. 원슈로이(명의록언해 1:12) ㅍ. 폐롭스오나(첩해신어 6:19) ㅎ. 대슈롭지(재간교린수지 3:12)

이들 예에서도 역시 한자어 어근을 어기로 한 파생형용사가 많음을

한편, ‘-되-’와 ‘-롭-’에 의한 파생형용사는 그 파생형용사 형성에 있어 중세국어 시기 가졌던 환경적 제약을 어느 정도 유지하였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되’는 자음어미 앞에 ‘롭’은 모음 어미 앞에 분포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근대국어 시기에는 중세국어 시기에 전혀 그 흔적을 보이지 않았던 파생형용사도 등장한다. 그것은 ‘-스럽-’에 의한 파생형용사들인데 다음의 예는 ‘-스럽-’에 의한 파생형용사가 기존의 ‘-롭-’에 의한 파생형용사와 어기를 공유함을 보여 흥미롭다.

현대국어에서의 ‘-스럼-’의 압도적 생산성⁶⁾은 (9)에서 볼 수 있듯이 이미 근대국어 시기 ‘-스럼-’이 ‘-롭-’과 어기 영역을 공유하는 예들을 보인다는 점에서도 예견된 일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예에서 ‘-롭-’이 ‘-스럼-’의 영역을 침범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잘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예에서 확인되는 어기가 대부분 부정적 의

미를 가지는 명사라는 점이 주목된다.

(9)에서 ‘-스럽-’에 의한 파생형용사는 ‘-롭-’이 올 만한 환경, 즉, 모음으로 끝나는 어기를 기반으로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으나 ‘-스럽-’에 의한 파생형용사는 그 밖의 환경, 즉 자음으로 끝나는 어기를 기반으로 형성되기도 하였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 (10) ㄱ. 호반스런(명성경 16) ㄴ. 어룬스럽다(방언유석 4:32) ㄷ. 근심스러이(지장경 상 48) ㄹ. 덕스러온(태상감용편 4:27) ㅁ. 촌스럽다(태상감용편 4:9) ㅂ. 줌스럽다(몽어유해보 36)

(10)은 자음으로 끝나는 어기 뒤에 ‘-스럽-’이 통합된 파생형용사들의 용례다. 근대국어 시기 ‘-스럽-’은 ‘-롭-’이나 ‘-되-’에 비해 적용 환경에 있어 음운론적 제약 조건을 가지지 않았고 이 점이 ‘-스럽-’의 높은 생산성의 한 배경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2.3. ‘-짓-’에 의한 파생형용사를 중심으로

중세국어 시기 ‘향기저스니라(월인석보 2:44); 통성저으며(내훈 3:22)’와 같은 예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접미사 ‘-짓-’은 근대국어 시기 특히 17-18세기 들어 상당히 활발한 생산성을 보이는 접미사였음이 주목된다. 그것은 ‘-되-’가 통합되었던 어기를 기반으로 ‘-짓-’에 의해 근대국어 시기 새로운 파생형용사들이 형성되었다는 사실에서 엿볼 수 있다. 다음의 예를 보자.

- (11) ㄱ. 의심되여(언해두창집요 상 12) ㄱ.’ 의심짓다(동문유해 하 31)
 ㄴ. 욕되물(이언 2:28) ㄴ.’ 욕저이(인어대방 5:6)
 ㄷ. 정성되이(어제내훈 1:62) ㄷ.’ 정성저온(계축일기 P136)
 ㄹ. 망녕되이(박통사언해 하 16) ㄹ.’ 망녕저이(마경초집언해 하 86)

(11)은 기존의 ‘-되-’가 통합되었던 어기에 ‘-짓-’이 통합되어 새로

운 파생형용사가 형성되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젓-’의 의미 영역이 ‘-되-’와 관련됨을 말해 준다.

(11ㄱ)의 ‘의심젓다’는 현대국어의 ‘의심쩍다’로 그대로 이어진다. 우리는 여기서 ‘-젓-’이 근대 이후 ‘-적-’으로 변화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선 국어사에 있어서 그와 동질적인 현상이 발견됨을 주목할 수 있다. 그것은 다름아닌 ‘반드기~반드시’에서 보이는 ‘ㄱ~ㅅ’ 교체 현상이다. ‘반드기’나 ‘반드시’가 기원적으로는 ‘반독+이’나 ‘반듯+이’의 형태론적 구조를 가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종성에서의 ‘ㄱ~ㅅ’ 교체 현상은 비단 ‘-젓-’과 ‘-적-’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젓-’계 파생형용사로 17~18세기 중심으로 새로이 등장하는 예들은 (11)이외에도 상당히 많이 발견된다. (12)의 예가 이를 잘 보여준다.

- (12) ㄱ. 아당저은(어제내훈 1:2) ㄴ. 빗저이(방언유석 2:5) ㄷ. 편잔저이
(삼역총해 6:20) ㄹ. 얹신저으니(현종언간)

그런데 ‘-젓-’에 의한 파생형용사 신조어는 19세기 이후에는 그 모습을 찾기 어렵다. 아마도 명사 어기를 기반으로 하는 ‘-스럽-’의 높은 생산성에 압도된 결과가 아닌가 한다. 현대국어에서도 ‘의심쩍다. 껌쩍다’와 같은 몇몇 형용사에 국한해 ‘-젓-’의 자취가 남아 있음을 참조할 수 있다.

2.2.4. ‘-엷-’계 파생형용사의 사적 변천

중세 이래 근대국어 시기에 이르면서 ‘-엷-’계 파생형용사, 그 중에서도 ‘-엷-’이 포함된 색채형용사 계열이 겪은 큰 변화 중 하나는 ‘퍼러흐-’가 ‘퍼렁-’이 되는 것과 같은 어간의 재구조화가 진전되면

서 단일어휘적 성격이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 (13) ㄱ. 프러흔 똥(언해두창집요 하 28) ㄴ. 누러거머흐며(언해두창집요 상 34) ㄷ. 벌거흐고(두창경험방 45) ㄹ. 퍼러흐다(한청문감 6:10)
ㅁ. 허여흐다(한청문감 6:9)

- (14) ㄱ. 파라코(금삼 3:48) ㄴ. 허여케(삼역총해 2:20) ㄷ. 불거케(구급간 이방 3:79) ㄹ. 노라키든(구급간이방 상 3) ㅁ. 가마케(두창경험방 27)

(13)의 어형은 중세국어 시기의 어형이 그대로 이어져 온 것이라 할 수 있지만 (14)의 어형은 중세 이래 색채형용사의 재구조화가 진전된 어형이다. (13)과 (14)는 근대국어 시기 공존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근대 후반기로 갈수록 어간 재구조화된 어형의 빈도가 더 높아짐을 볼 수 있으며 결국 현대국어에 이르러서는 재구조화된 어형만이 남게 된다.

‘-엇-’계 색채형용사는 형태적으로 ‘-아/어 흐-’를 포함하는데 이는 통사적 구성인 ‘-아/어 흐다’에서 기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어 흐다’는 선행 어사(형용사인 경우)의 상태성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⁷⁾ 그런데 통사적 구성에서 기원한 ‘-아/어 흐-’는 색채를 나타

7) ‘-아/어 흐다’가 선행 어사의 상태성을 강조하는 기능을 가진다는 논의는 이탁(1959: 148)에서부터 그 싹을 볼 수 있다. 이탁(1959: 148)에서는 ‘언더흐-’가 기원적으로 미지의 ‘언’과 상태의 뜻을 가진 ‘더흐’와의 합성어임을 지적하고 ‘이러흐-’, ‘그러흐-’, ‘저러흐-’ 역시 동일한 구조에 의한 합성어임을 논명한 바 있다. ‘어 흐’가 아닌 ‘더 흐’를 상정한 것은 잘못이었지만 ‘어 흐’에 ‘상태성’의 고유 기능을 부여한 것은 본질을 꿰뚫는 지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현희(1985)에서는 어간 ‘*플-, *눌-’ 등을 상정하고 여기에 상태성을 강조하는 ‘-아/어 흐-’가 통합된 것이 ‘프러흐-’와 ‘누러흐-’인 것으로 추정하는 한편, 이미 중세국어 시기에 ‘프러흐-’와 ‘누러흐-’등이 단일 어휘차원으로 인식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플-, *눌-’이 단독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미 중세국어 시기에 ‘프러흐-’와 ‘누러흐-’등은 단일어휘적 성격이 강한 어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내는 어사를 형성하면서 단일어휘적, 어휘고정적 성격이 강해졌고 이는 결국은 ‘ㅎ-’의 ‘.’ 탈락과 함께 ‘ㅎ’이 어간의 일부로 인식되는 어간의 재구조화를 가져온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여기서 ‘-엇-’계 파생형용사의 어간 재구조화의 배경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선 ‘누러ㅎ-’ 등의 ‘-아/어 ㅎ-’는 기원적으로도 선행 요소의 상태성을 강조하는 기능을 띠었을 뿐이지 뚜렷한 통사론적 기능을 가지지는 않았던 형식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누러ㅎ-’ 전체의 단일어휘적 성격이 점점 강화되고 더욱이 근대국어 시기 ‘슬퍼 ㅎ-’와 ‘저퍼 ㅎ-’ 등과 같은 문맥에서는 ‘-아/어 ㅎ-’가 뚜렷한 타동문 형성의 기능을 가지게 되면서 색채형용사에 분포하는 ‘-아/어 ㅎ-’는 설자리를 잃게 된 바 결국은 형식의 탈락을 감수하여 어간 재구조화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어간의 의미에 정도성을 더함 이외에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않았던 ‘-아/어 ㅎ-’는 잉여적 의미를 가지는 요소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점도 어간 형식 탈락의 한 배경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누러ㅎ다’ 등의 색채형용사와 ‘그러ㅎ다’ 등의 지시형용사는 共히 형식적으로는 ‘어ㅎ’를 기원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기원적 구성에서 차이를 보이고 또 통시적인 발전 경로에 있어서도 좀 다른 양상을 보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누러ㅎ-’는 근대국어 시기 ‘누렁-’과 ‘누러ㅎ-’가 공존하다가 결과적으로 현대국어에서는 ‘누렁-’만이 잔존하게 되었지만 ‘그러ㅎ-’의 경우에는 ‘그러ㅎ-’와 ‘그렁-’이 현대국어에서도 공존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누러ㅎ-’의 경우 기원적으로 형용사어간에 ‘어 ㅎ-’가 통합된 바 단일어휘화하기 쉬운 환경에서 단일어휘화 되고 이어 어간 재구조화를 겪게 되었지만 ‘그러ㅎ-’의 경우에는 기원적으로 ‘어ㅎ’가 포함되기보다는 ‘그리’(혹은 ‘그리’)와 같은 부사와 형식동사 ‘ㅎ-’가 포함된 구조였기 때문에⁸⁾ ‘어간 + 어 ㅎ-’의 구조를 가졌던

8) ‘그러ㅎ-’ 등의 기원적 구조에 대해서는 이현희(1985)가 참조된다.

‘누러흐-’에 비해 단일어휘적 성격이 약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어간 재구조화형이 ‘그렁-’이 형성되었어도 신형인 재구조화형만이 존재하지 못하고 구형인 통사적 구성(‘그러흐-’)과 공존하는 결과를 빚은 것으로 생각된다.

3. 결론

국어의 형용사에서 파생형용사의 비중은 상당히 높다. 그런데 근대국어 시기 이들 형용사들은 부침을 꽤 심하게 겪었다. 소멸된 형용사들도 있고 또 파생이라는 절차에 의해 새로이 형성된 형용사들도 많았다. 특히 이 시기 형성된 형용사들은 현존하는 국어형용사의 목록을 풍부하게 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주로 파생형용사의 어휘사를 중심으로 국어 형용사의 어휘사를 다루었는데 서론에서도 밝혔듯이 이들 형용사 부류의 특성은 가장 형용사답다는 데 있다. 이것은 이들 형용사가 동사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사실 국어 형용사의 어휘사를 일률적으로 혹은 통합적으로 기술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각각의 어휘는 그 어휘가 일정한 품사 부류에 속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에 어휘 하나 하나가 일관성 없는 변화를 겪기 마련이기 때문에 일정한 한 품사의 어휘사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술하는 것은至難한 일이다.

본고에서는 파생이라는 동일한 문법적 절차에 의해 비슷한 의미 부류를 형성하는 형용사들과 기원적으로 동일한 구성을 가졌던 색채파생형용사들의 변화를 중심으로 하나의 틀로 구성해 내기 힘든 국어 형용사 어휘사의 기술을 나름대로 시도해 보았다. 본고에서 미진했던 내용이 앞으로 보다 깊은 연구와 질정으로 보완되길 바랄 뿐이다.

참고문헌

- 강성일(1972), “중세국어 조어론 연구”, 동아논총 9.
 김완진(1973), “국어 어휘 마멸의 연구”, 진단학보 35.
 김창섭(1984), “형용사 파생접미사들의 기능과 의미”, 진단학보 58.
 류 렬(1992), 조선말력사, 사회과학출판사.
 민현식(1984), “-스럽다, -롭다’ 접미사에 대하여”, 국어학 13.
 박동근(1992), “한국어 상징어의 형태, 의미, 구조 연구”, 건국대 석사학위논문.
 서정수(1975), 동사 ‘하-’의 문법, 형설출판사.
 석주연(1995), “근대국어 파생형용사의 형태론적 연구”, 국어연구 132.
 송철의(1989), 국어의 파생어형성 연구, 태학사.
 안병희(1959), “15세기 국어의 활용 어간에 대한 형태론적 연구”, 국어연구 7.
 유현경(1998), 국어 형용사 연구, 한국문화사.
 유창돈(1971), 어휘사연구, 선명문화사.
 이경우(1981), “파생어 형성에 있어서의 의미변화”, 국어교육 39·40.
 이기문(1972), 개정 국어사개설, 민중서관.
 이기문(1991), 국어 어휘사 연구, 동아출판사.
 이지양(1993), 국어의 융합현상과 융합형식,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이 탁(1959), 국어학논고, 정음사.
 이현규(1982), “접미사 ‘-답다’의 형태, 구조, 의미 변화”, 조규설박사 화갑기념논총.
 이현희(1985), “흐다 어사의 성격에 대하여: 누러흐다류와 엇더흐다류를 중심으로”, 한신논문집 2.
 하치근(1989), 국어파생형태론, 남명문화사.
 허웅 (1975),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홍기문(1966), 조선어역사문법, 사회 과학원 출판사.
 홍윤표(1993), 국어사 문헌자료 연구(근대편1), 태학사.
 Bybee, Joan L.(1985), *Morphology*,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Taylor, John R.(1995), *Linguistic Categorization*, 2n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Wierzbicka, Anna(1996), *Semantics*, Oxford University Press.
- 서울시 양천구 목동 목동아파트 1단지 105-504, 158-751
 전화번호: (02)2648-8481, 전자우편: smilla@hanmir.com